

 POSRI 보고서

조코노믹스의 과제와 장기 성장 전망

심상형 수석연구원, 경제·정보분석센터 (shshim@posri.re.kr)

전기용 수석연구원, 철강연구센터 (kjeon@posri.re.kr)

김영훈 수석연구원, 철강연구센터 (golyong@pos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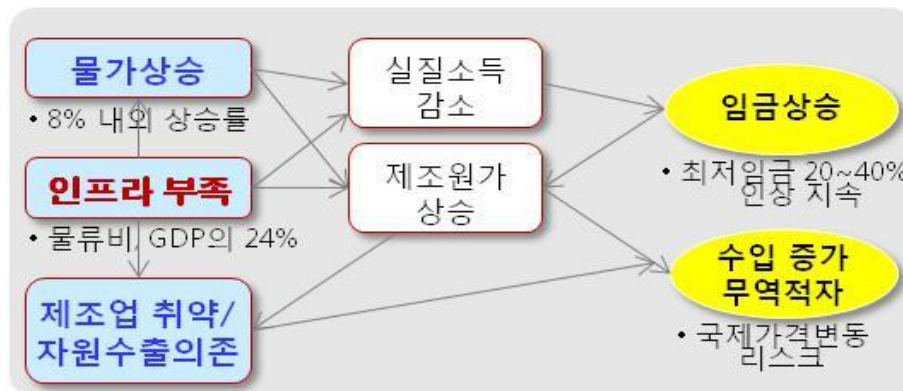
[목 차]

1.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 및 신정부의 당면 과제
2.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3. 신정부의 경제 정책과 성장 전망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Executive Summary

- 조코위 신정부는 단기적으로 성장률 회복 과제를 안고 있음, 그러나 금리 인하 부작용 우려 및 재정부족으로 빠른 경기회복은 기대난
 - '14년 1분기 5.2%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성장률을 끌어올려, '인구보너스'에 의한 고성장이 고실업의 '인구저주'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함
 - 예산적자가 GDP 대비 2.5%(위험수준 3%)에 달함. 이 결과 인프라투자를 담당하는 공공사업부 예산이 전년비 27%나 감소하는 등 경기부양에 난관 예상
- 인도네시아 경제는 ①자원의존형 성장의 부작용, ②열악한 인프라, ③취약한 자본시장 및 산업기반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중간재 및 최종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상시적인 경상수지적자 부담과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 물류비가 GDP의 24~27%를 차지하여 기업 및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인프라 투자액은 GDP의 2%로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에 그침
 - 제조업 성장이 저조한 반면 서비스산업이 불균등하게 발달하였고 특히,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금융, 통신 등보다 소매, 호텔 등이 큰 비중 점유

<인니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14.6)

- 인니 정부는 인프라와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자금난과 체계적 실행방안의 미비로 추진 성과가 크지 않았음
- 친서민, 친시장 지향의 조코노믹스는 정책 실행에서 혼선 발생 가능성 다분. 특히 서민층 및 해외투자자 기대에 부합해야 하는 압박 존재
 - 아직까지 '조코노믹스'의 뚜렷한 방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경공업 육성, 인프라 투자의 확대, 부패척결과 행정 개혁 등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 노동집약적 경공업 육성 정책과 근로자의 임금상승이 상호 배치되는 등 정책 혼선으로 개혁 효과가 미진할 가능성도 우려됨

<조코노믹스의 영향과 한계(예상)>

조코노믹스(예상정책)	영향 및 효과	과제/문제점
① 중소기업 육성	산업기반 구축 및 장기 성장 동력 마련	수입재 대비 경쟁력 확보 어려움
② 노동집약적 경공업 육성	취업률 상승, 중산층 육성, 공업발전 기반 구축	임금인상 정책과 동시 추진 하기 어려움
③ 인프라 확대	경제 근본문제 해결, 성장동력 마련	투자재원 마련 계획 불투명, 유류보조금 삭감 통한 재원 마련 시 물가상승 딜레마
④ 친서민, 친노동자 성향 정책	근로자 임금상승, 사회안전망 확충	임금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 추가 하락 리스크, 사회보장 재원 마련 계획 불투명
⑤ 시장친화적 정책	공정경쟁, 규제완화, 기업환경 개선, 화교 투자 및 FDI 증가	국유기업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 예상
⑥ 부정부패 척결 및 행정시스템 개선	부패 비용 감소,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빈부격차 해소, 비효율 행정 비용 감소	정치적 기득권 세력의 반발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14. 7)

- 인니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내년 5.5%의 성장을 이룰 전망. 그러나 구조적 개혁 없이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어려울 듯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신정부 출범 후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세로 전환 되어, '15년 성장률은 5.5% 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 장기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육성으로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20년까지 연평균 5.2~5.8%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현지진출 기업은 단기적으로 임금상승과 물가상승 가능성 및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며, 장기 저성장에 대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정부 정책 실행 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루피아 가치 하락 등으로 경기하강 가능성 존재. 따라서 정부 정책 파급영향 모니터링 필요
 - 인니 경제의 본격적인 고성장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동시에 인니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신규 사업 발굴 등의 기회로 삼는 전략도 추진
 - 신정부의 인프라 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한국 정부와 연계한 전략적 사업개발 등 추진 가능

1.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 및 신정부의 당면 과제

□ 조코위 당선 후 최근까지 인니 금융시장의 반응은 미온적

- 지난 해 인니 경제는 美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등 대외 악재에 고전
 - 인도네시아는 인도, 브라질, 터키, 남아공과 함께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신흥 5개국(Fragile Five)으로 분류되었음
 - 지난 해 5월 22일, 美 연준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한 후 6개월 동안 주가는 15.7% 하락하고,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은 24.2% 상승
- 인니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조코위 대통령 대세론에 대한 기대로 ‘14년 1분기에 빠른 속도의 회복세 시현(’14.1~3월, 주가 13.2% 상승, 환율 4.6%)
 - 인니 중앙은행, ’13.5월 이후 6개월 동안 기준 금리를 5.75%에서 7.50%로 5차례 인상하면서 해외자금의 이탈 최소화
 - 정치 신인이었던 조코위의 대선 지지율이 50% 이상 급등하면서 정치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해외자금 유입도 증가
- 4.9일 총선 이후 조코위 효과가 누그러졌고, 최근 대선 결과가 확정됨. 현재까지 조코노믹스에 대해 시장은 지속 관망하는 상태
 - 총선에서 조코위 소속 투쟁민주당(PDIP)의 지지율이 기대 이하(20% 미만)로 나타나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었음
 - 7.9일 대선 이후 현재까지 주가는 0.2% 하락했으며, 루피아 가치는 0.3% 상승에 그침. 이는 시장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님
 - 금융시장은 조코위의 성향을 국수주의적인 뿌라보워(대권 경쟁 후보)와 해외투자 친화적인 유도요노(현 대통령)의 중간 정도로 인식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동향(달러/톤)〉

	주가(자카르타종합지수)		환율(루피아/달러)	
	등락폭	증감율	등락폭	증감율
(1) 2013.5.22일 테이퍼링 시사 이후 12.31일까지	5,068 → 4,274	△15.7%	9,765 → 12,165	24.2%
(2) 2014.1.1.일부터 총선결과 발표(4.6일까지)	4,274 → 4,840	13.2%	12,165 → 11,608	△4.6%
(3) 총선결과 발표일부터 대선(7.9일) 전까지	4,893 → 5,024	2.7%	11,675 → 11,670	△0.04%
(4) 출구조사 발표(7.10일) 이후 7.28일까지	5,098 → 5,088	△0.2%	11,580 → 11,620	△0.3%

자료 : 블룸버그

□ 조코위 정부, 출범 후 시장안정화 위한 경제정책 과제 산적

- '14년 1분기 5.2%로 하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함
 - 7%대 경제성장률을 지탱했던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 효과가 5%대 성장 하에서는 '인구저주(Curse)' 효과로 돌변할 우려가 있음
 - 인구 2억 4천만 명 중 약 70%에 육박하는 생산가능인구가 7%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5%대에서는 일자리 부족으로 대규모 실업이 불가피하기 때문
- 물가안정과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금리인하 정책 등이 필요하지만 해외 자금 유출, 환율상승(수입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발생도 우려
 - '13년 경상수지 적자를 관리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수요 위축과 성장률 하락을 경험함
- '14년 예산적자가 GDP 대비 2.5%로 위험수준(3%)에 육박하여, 인프라 등 정부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이 부족한 점도 난관임
 - '14년 재정적자 심화와 레임덕 영향으로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27%로 최대 폭 감소
 - 예산의 20%에 달하는 유류보조금을 삭감하여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이 경우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서민층의 반발이 우려됨
- '17년 이후 원광수출이 완전히 금지될 예정임. 이 경우 무역적자 심화에 의한 경착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태
 - 1위 수출품목인 석탄의 금년 가격은 '11년 대비 60% 수준으로 폭락, 작년 대비로는 87%에 머물러 있어 당분간 무역적자 지속 전망
 - 인니 주요 수출자원(세계순위): 석탄(1위), 주석(1위), 니켈(3위), 동(6위)
 - '17년 이후 원광수출이 전면 금지되면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되어 경기 위축 가능성이 크므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광물 가격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개월 평균	2011년 대비 (%)	2013년 대비 (%)
유연탄	121.31	96.19	85.07	74.75	61.6	87.8
주석	21,035	21,072	22,304	22,914	108.9	102.7
니켈	17,509	17,502	15,003	16,555	94.5	110.3
동	7,947	7,963	7,322	6,913	86.9	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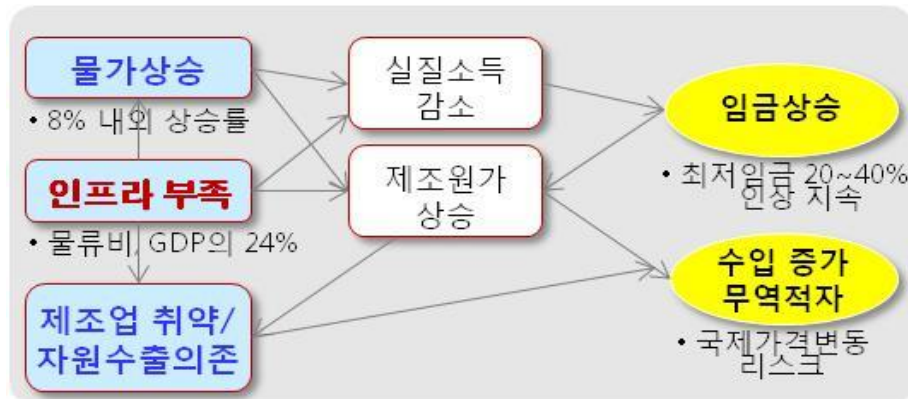
자료 : 런던금속거래소, 한국자원공사 등

2.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 신정부는 인니 경제의 뿌리깊은 난제들을 안고 출범

- 인니 경제는 ① 높은 자원수출 의존도 ②인프라 부족 ③취약한 산업기반 등의 문제 때문에 물가와 제조원가의 상승, 실질소득 감소에 의한 임금 상승, 무역적자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인니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자료 : POSRI 작성('14.6)

① 자원의존형 성장으로 높은 대외의존도 등 부작용 누적

□ 자원부국으로서 수출 및 FDI가 자원산업에 집중됨

- 주요 자원이 세계적인 매장 및 생산량을 기록하며, 자원수출이 총수출의 52%를 차지함
 - 매장량 기준 석유 세계 14위, 금 5위, 주석 2위, 가스 생산량은 세계 10위
 - 품목별 수출('13년 6월)에서 농산물 3%, 광물 31%, 석유 및 가스 14%, 고무 및 목재 7%로 자원수출은 52%, 제조업 관련 수출은 44%에 그침
- FDI도 자원부문에 집중('13년 21%)되면서 자원수출을 가속화
 -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일본, 한국으로 인니 자원의 대외수출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자원부국 딜레마'를 겪으며 제조업 발전은 저조한 상태에 그침

- 이른바 '자원의 저주'로 경제의 불균형 발전과 부패 등의 문제 발생
 - 러시아, 브라질, 호주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자원수출에 의존하면서 자국 내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하게 됨. 중간재 및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구조 형성
 - 또한, 자원개발을 독점하는 일부 기득권층에 부가 집중되며, 정치권과의 결탁으로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소득불평등도 심화

- 인니 역시 자원을 수출하고 다량의 중간재와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상시적인 경상수지 적자의 부담을 안고 있음
 - ‘13년 4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40억 달러로 GDP 대비 1.98%였으나, ‘14년 2분기에는 GDP의 3%까지 급증
 - 최근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석유가스를 제외한 부문에서의 무역수지 불균형 때문으로 금년 2분기 최근 5년래 가장 낮은 5.12% 성장률에 그치는 원인이 되었음
 - ‘14년 1월 광물 원광 수출금지 정책의 시행과 이후의 한계 노출, 글로벌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약세로 주요 수출품인 팜오일과 고무, 석탄 등의 수출 부진

② 열악한 인프라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범

□ 인프라 부족에 의한 고비용 구조 때문에 성장 지체

- 도로, 항만 등 전 부문에 걸쳐 인프라가 부족하여, 물류비가 GDP의 24~27%를 차지하는 고비용 구조에 놓임
 - WEF(World Economic Forum)의 '13년 경쟁력 지수 조사에서 인니의 인프라 수준은 148개국 중 61위에 그침

〈인도네시아 인프라 부분 경쟁력 평가순위 지수〉

항목	'10년	'11년	'12년	'13년
도로	84위	83위	90위	78위
철도	56위	52위	51위	44위
항구	96위	103위	104위	89위
공항	69위	80위	89위	68위
전력	97위	98위	93위	89위
종합	82위	76위	78위	61위
평가대상국	139	142	144	148

단위: 순위

참조: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향후 소득 증대와 중산층 확대로 인프라 수요 증가는 지속될 전망으로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임
 - 인니의 인프라 수요는 '13~'20년 동안 약 2,370억 달러(24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Goldman Sachs, '13)
 - 특히, 전력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하며, 물류수송량 증가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

〈'13~'20년 인니의 부문별 인프라 수요〉

구분	도로	철도	항구	공항	전력	기타
수요액	520	500	180	50	990	130
비 중	21.9%	21.1%	7.6%	2.1%	41.8%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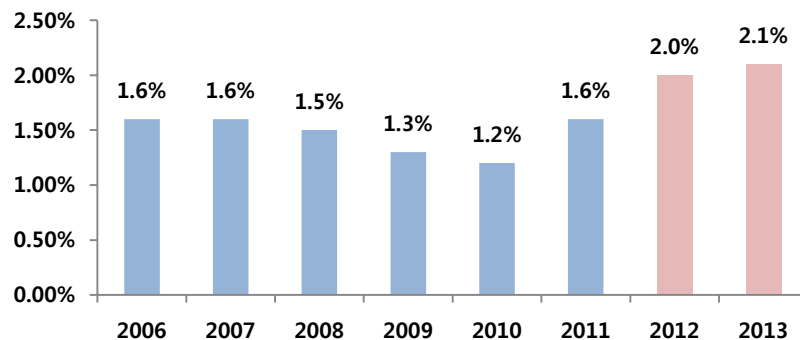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Goldman Sachs, 'ASEAN's half trillion dollar infrastructure opportunity' ('13, 5)

□ 인니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자본 유치에 노력 중

- 인니의 인프라 투자액은 GDP의 2%로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
 -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은 5~7%로 인니보다 높은 상태(World Bank, Indonesia Economic Quarterly, '13)
- 인프라 확대는 조코위의 경제정책 공약으로서 항만과 동서연결도로 건설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전 정권에서 투자규모가 작았던 항만 건설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전망 (10개 신항만 건설 공약)
 - 동쪽 빠푸아(Papua)~서쪽 수마트라(Sumatra) 연결 2,000km 도로 신설로 국토 횡단 물류체계의 건설 추진
 - 도심지역의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시설의 10% 확충도 공약으로 추진

〈인니의 GDP 대비 인프라 투자액〉



자료: 인도네시아 Government Budget Note, Credit Suisse Estimates

- 관건은 인니 정부의 투자재원 확보 여부임. 현재로선 외국자본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에 외자유치 확대 정책으로 연결될 전망
 - 인니 정부는 '25년에 세계 10대 경제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 계획(MP3EI)에서 투자재원의 51%를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움
 - 민간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공공민간파트너(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전략을 추진 중임. 하지만 투자 정책 미비로 현재 까지 실적은 부진한 상태

- 인니 정부는 ‘13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의한 해외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에 나섬. ’13년 12월부터 공항/항만 시설, 발전소 등의 지분을 49~100%까지 외국인이 소유하도록 허용
- 조코위는 자카르타 시장으로서 ‘13년 일본과의 협력으로 MRT(Mass Rapid Transit) 사업의 재개를 이끌어 내는 등 인프라 확충 실현 의지와 실행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자카르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89년 시작된 MRT 건설 연구는 ’97년 금융위기로 사업이 잠시 중단되었음. 이후 ’00년 일본의 JICA(일본 국제협력기구)의 자금 조달과 협력으로 공사 재개

- 조코위는 자카르타 시장 시절(’13년), ’17년 완료 계획으로 MRT 프로젝트 건설에 착공
- 현재 자카르타 북쪽과 남쪽을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이면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인 Jalan Sudirman을 중심으로 MRT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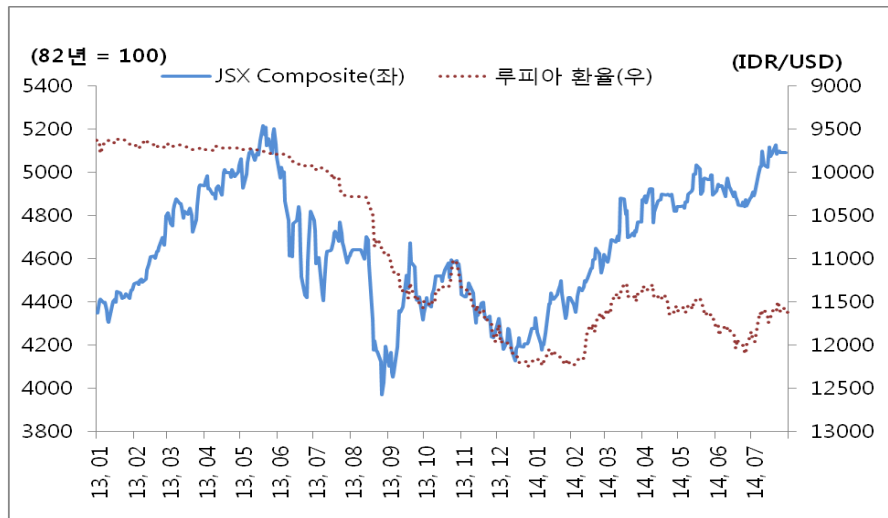
③ 자본 및 산업 구조의 취약성

□ 취약한 자본시장 구조

○ 인니 경제는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하여 외국자본의 이탈과 환율 변동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인니는 ‘70년대 외환거래 자유화 및 ‘90년대 초반 자본시장을 개방함. 이후 ‘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국자본의 투기적인 유출입으로 여러 차례의 외환시장 불안정에 노출
- ’97년 외환위기 시 주가하락과 외국자본 유출에 의한 환율 상승 경험
- ’09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선진국으로부터 인니 주식(760억 달러), 채권(461억 달러), 은행차입(642억 달러) 등에 총 1,863억 달러 유입
- 최근에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발표와 인니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환율과 주가의 급락 반복. ‘13년 미 양적완화 축소로 루피아가치가 하락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며 자본시장에 큰 혼란 발생
- ’14년 5월에는 대선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환율이 달러당 12,100원까지 재차 상승하며 금융시장의 불안 야기
- 외자이탈과 루피아 가치 하락에 따른 불확실성에 노출되며 경제 민족주의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양상

〈인니 주가지수와 루피아 환율〉



자료: Newinfomax

○ 인니 자체의 자본 축적이 부족한 가운데, 무역의존도와 외채의존도가 높은 상태

- 산업의 약 64%가 원·부자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계 및 금속, 자동차, 전자, 기초 화학, 식음료, 사료, 섬유 및 섬유 제품, 기타 화학 제품, 펄프 및 종이 등 인니 산업생산의 80%를 차지하는 9개 산업에서 원·부자재와 자본재를 가장 많이 수입
- 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높고 천연자원의 수출 비중이 높은 무역구조상 루피아/달러 환율 상승 시 경상수지 적자의 가능성이 높음
 -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의 비중 3.5%(‘13년)
- 총외채 잔액은 GDP의 25.1%(‘13년)로 여타 신흥국 대비 견조한 수준이나, 단기외채 비중이 57.6%로 높아서 대외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함

〈'13년 주요 신흥국 경제지표〉

국가	외환보유액	GDP 대비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GDP 대비 총외채 잔액(%)
인도네시아	99.4	-3.50%	57.57%	25.10%
브라질	378.3	-3.63%	8.62%	21.50%
인도	295.0	-1.98%	31.42%	22.69%
터키	117.6	-7.93%	109.78%	47.32%
필리핀	83.2	2.80%	19.23%	29.10%
멕시코	179.2	-1.60%	40.89%	28.60%

단위: 10억 US\$

참조: 각국 중앙은행

□ 제조업 성장이 저조한 반면 서비스 산업 위주로 발전

- 인니 내수경기는 교통/통신과 무역/호텔/요식업, 건설 및 금융·부동산 등이 주도
 - 인니 1차 산업의 GDP 비중은 26%, 2차 산업 34%, 3차 산업 40% 구성비로 1차 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13년)
 - 제조업 비중은 23.7%에 그치며 서비스업 가운데에도 금융, 교통, 통신 등 경제성장에 필요한 부분보다 소매와 호텔 등이 큰 비중을 점유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 비중 추이〉

산업 구분	2005	2008	2010	2013*
농수산업	13.13	14.48	15.31	14.43
광업 및 채굴	11.14	10.94	11.16	11.24
제조업	27.41	27.81	24.79	23.70
전기,가스,수도	0.96	0.83	0.76	0.77
건설	7.03	8.48	10.27	9.99
무역,호텔,식음료	15.56	13.97	13.71	14.33
교통,통신	6.51	6.31	6.57	7.01
금융서비스	8.31	7.44	7.25	7.52
기타서비스	9.96	9.74	10.17	11.02

자료: Ministry of Industry(www.kemenperin.go.id)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2014

- '14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5.2%였으나 제조업 성장률은 3.4%에 그침. 산업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를 드러냄
 - 특히, 섬유(-12.9%)와 화학제품(-10.7%), 기계류(-22.6%) 등의 생산부진 심화.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니 업종별 산업생산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섬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전자기기	기계류
3.4%	-12.9%	-10.7%	4.8%	18.1%	-22.6%

자료: CEIC database('13년 6월)

- 인니 정부는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6대 '핵심 산업군'을 지정한 국가 산업개발계획(RIPIN)을 마련. 이 역시 1차 산업과 경공업 위주임
 - 6대 산업군: 식량, 화장품/의약, 섬유, 교통수단, 전자 및 정보통신, 전력
 - 중장기적인 내수 증가 전망과 자체적인 개발 잠재력 보유,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의 3개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함

※ RIPIN 정책

(Rencana Induk Pembangunan Industri Nasional : 영문으로 Major Plan of National Industry Development을 의미)

- 식량, 섬유, 의약 및 전력산업 등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며, 향후에도 내수 충족을 위해 개발이 매우 절실한 산업군
- 전자 및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산업은 혁신과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연결망을 확충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산업군
- 6대 핵심산업을 지원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도 별도로 지정
- **보조산업(Supporting Industry)군** : 자본재산업, 부품산업, 부자재산업
- **상공정산업(Upstream Industry)군** : 농업, 광물, 석유가스 및 석탄

- RIPIN 정책을 통해 ‘35년까지 산업성장률을 8%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RIPIN을 통한 산업성장률 전망(석유가스 제외)〉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5년
6.15%	6.9%	8.73%	9.53%	9.03%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13)

- 인니 정부는 산업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①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수립, ②정부 및 참여기관의 책임과 의무 이행, ③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

※ 인니 정부가 규정한 제조업 발전의 장애요소

- 외부요인 : 섬유·전자·램프·철강·목재 등의 불법 수출입, 가스 및 전기 부족, 높은 이자율, 관료주의, 노동규제 등
- 내부요인 : 산업구조의 다양성 부족, 원자재 수입 의존, 기술부족, 생산의 비효율성, 시장통제 부족, 특정 국가와 품목에 의존하는 수출입 구조, 중소기업의 역할 부족 등

3. 신정부의 경제 정책과 성장 전망

① 조코노믹스 효과와 단기 전망

□ 중소기업 육성, 부정부패 일소 등을 통해 국영·대기업 중심의 기존 경제구조에 개혁을 꾀할 전망

- 대선 공약 및 경제 철학을 밝힌 것 외에 아직까지 ‘조코노믹스’의 뚜렷한 방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친서민·친시장’ 기반 정책 출현 예상

- 중소기업 및 경공업 육성, 인프라 투자, 부패척결, 행정 개혁 등으로 인니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전망
 -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그동안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이었던 유가보조금 축소로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
 - 정부의 재정적자(GDP 대비 재정수지 -2.2%, '13) 부담이 큰 상태에서 민간부문의 투자와 FDI를 통해 인프라 투자를 유도해 나갈 전망

□ 그러나 노동집약적 경공업 육성과 근로자 임금인상 방침이 상호 배치되는 등 정책 혼선 가능성

- 또한 조코위에 지지를 표명한 서민층의 복지 기대와 해외투자자의 시장 친화 정책 등 기대심리에 부응해야 하는 압박도 존재함

〈조코노믹스의 영향와 한계(예상)〉

조코노믹스(예상정책)	영향 및 효과	과제/문제점
② 중소기업 육성	산업기반 구축 및 장기 성장 동력 마련	수입재 대비 경쟁력 확보 어려움
② 노동집약적 경공업 육성	취업률 상승, 중산층 육성, 공업발전 기반 구축	임금인상 정책과 동시 추진 하기 어려움
③ 인프라 확대	경제 근본문제 해결, 성장동력 마련	투자재원 마련 계획 불투명, 유류보조금 삭감 통한 재원 마련 시 물가상승 딜레마
④ 친서민, 친노동자 성향 정책	근로자 임금상승, 사회안전망 확충	임금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 추가 하락 리스크, 사회보장 재원 마련 계획 불투명
⑤ 시장친화적 정책	공정경쟁, 규제완화, 기업환경 개선, 화교 투자 및 FDI 증가	국유기업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 예상
⑥ 부정부패 척결 및 행정시스템 개선	부패 비용 감소,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빈부격차 해소, 비효율 행정 비용 감소	정치적 기득권 세력의 반발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14. 7)

□ 인니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5.2%로 둔화되나, '15년에는 다소 상승하여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

- '14년은 국제 원자재가격의 약세와 중국향 고무 및 석탄 수출의 감소, 루피아 가치 하락 등으로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어 경기하락 기조가 지속될 전망
 - Global Insight 등은 최근 금년도 인니 성장률을 당초 5.8%에서 5.2%로 하향 조정('14년 5월)
 - 인니 중앙은행도 '14년 경제성장률을 5.5~5.9%에서 5.1~5.5%로 하향 조정함('14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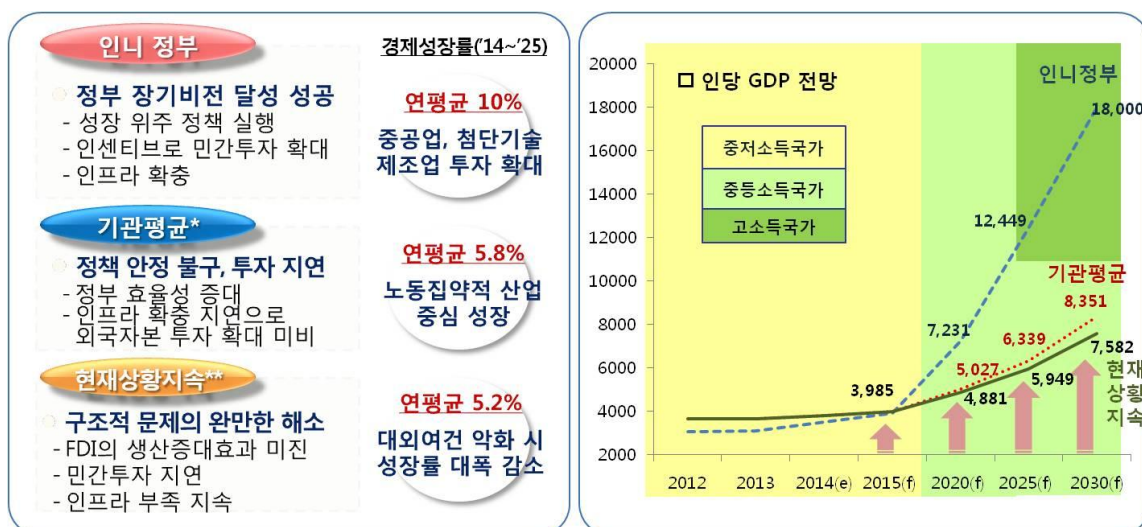
-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회복 전망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신정부 출범 이후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성장률이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 IMF, Global Insight 등은 '15년 인니 경제가 5.5~5.8%의 성장률로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루피아 환율의 절하가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것임
 - 세계경제성장률(국제통화기금, '14. 7) : 3.2%('13)→ 3.4%('14) → 4.0%('15)
 - 소비는 GDP 대비 65% 가량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축소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등 불확실성 요인 상존
-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성 즉, 대외지급부담 규모(총외채비율)가 높아, 대외환경 변화 눈 여겨 봐야. 특히 자본유출 충격으로 경기하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그러나 급속한 자본유출과 이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음

② 장기 성장 전망

□ 경제의 '구조적 개혁(Structural Reformation)' 없이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15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나, 구조적 개혁 없이는 6% 대의 성장률('10~'12년)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 장기성장 전망>



자료 작성 및 예측 : 포스코경영연구소('14.6)

자료참조: World Bank, IMF, HIS Global Insight(f), 인니 통계청(BPS),

인니 정부-Indonesia Forum Foundation (Indonesia Vision 2030)

단위: US \$

주: * 주요 경제패널(World Bank, IMF, IHS Global Insight (f))의 성장률 이용 추정,

**는 산업별 제조업 성장률, 소비, 정부투자, Inflation 등 거시지표로 추정

(*는 '18년 이후 포스코경영연구소 추정, **는 '15년부터 포스코경영연구소 추정)

- ①원자재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제조업 부문 육성 및 활성화, ②막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도로, 항만, 보건, 교육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전환하여 시장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구조개혁 필요(IMF)
- 아시아 개도국 중 가장 복잡한 인허가제도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게 걸림돌.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민간투자 유도, 적절한 환율 관리로 제조업을 활성화하는데 실패할 경우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인도네시아 중앙은행)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① 신정부 정책 과제 및 단·장기 경제 전망

□ 조코위 정부는 단기적으로 성장률 회복 과제를 안고 있음. 그러나 금리인하 부작용 우려 및 재정부족으로 빠른 경기회복은 기대난

- '14년 1분기 5.2%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성장률을 끌어올려 인구 보너스에 의한 고성장이 고실업의 인구저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 시 환율과 물가 상승 우려 심화. 재정 부족으로 정부투자 확대도 어려움 예상
 - '17년 원광수출 금지법의 본격 시행될 경우 수출감소에 의한 경착륙 우려 제기. 따라서 집권 초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중요한 상황임

□ 친서민, 친시장의 조코노믹스는 정책 실행에서 혼선 발생 가능성 다분. 특히 서민층 및 해외투자자 기대에 부합해야 하는 압박 상존

- 중소기업 및 경공업 육성, 인프라 투자, 부패척결 및 행정개혁 등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전망
- 그러나 임금인상과 사회안전망 확충 과정에서 경공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 등 정책의 방향성이 상충되어 성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또한, 정치권과 국유기업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함께 재정건전화를 위한 유류보조금 폐지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 서민 지지층의 이탈 등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인니 경제, '15년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함께 상승세로 전환되나, 구조적 개혁 없이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임

- 수출 증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신정부 출범 후 투자 확대 등으로 내년 성장률 5.5% 가량으로 상승 예상

- 인도네시아의 민감한 환율 변동과 열악한 인프라, 취약한 자본시장 및 산업기반 등 구조적 문제 해소에는 장시간 필요
- 따라서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육성을 통해 시장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 시키지 않을 경우 '20년까지 연평균 5.2~5.8% 성장으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인니 진출 기업은 단기적으로 임금상승 부담과 물가상승 가능성 및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 조코위 정부의 친서민, 친노동자 정책으로 임금인상과 노동자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 기능 강화에 대비해야
 - 인건비 등 비용증가 대비 노동생산성 향상과 생산 및 판매경쟁력 확대 등 종합적인 경쟁우위 확보 추진
 - 현지직원들과의 소통 확대 및 상호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노력 등 노무 관리를 강화해야
- 신경제정책 실행 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루피아 가치 하락 등에 의한 경기 하강 가능성 상존. 정부 정책 및 파급 영향의 모니터링과 사전대응 필요
 - 내수는 감소하는 반면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과 코스트가 상승하는 이중고에 처할 수 있음
 - 따라서 인니의 경기변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기적 경기 급락 시 현지법인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하는 등 준비에 만전 기해야

□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 육성 등 신정부 정책에서 기회발굴 노력

- 신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떠올라 있지만 재원이 부족한 인프라 투자와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육성 등에 주목하여 사업기회 발굴 추진
- 인니 경제의 본격적인 고성장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참고자료]

[공개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1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Sachs J.D. and A. M., Warner, 2001, "Natural Resource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urse of Natural Resources," European Economic Review, 45, pp. 827-838

World Bank Indicators

World Bank, 2012, Doing Business 2012

[언론자료]

연합뉴스, 중국 성장 둔화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그늘', 2014.4.21

월간 CHIEF EXECUTIVE 2012년 1월호

[학술자료]

2035년 산업 강국 달성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책과 6대 핵심 산업군 분석, 박창호, 2014. 7

대외경제연구원,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방안, 김종일, 윤미경, 정책연구13-09

Economic Comment, HMC투자증권,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및 전망, 유신익, 2012. 03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 연구소,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위험 평가 보고서, 2013. 05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 연구소, 인도네시아의 주요 인프라 개발 동향과 시사점, 2013. 10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 연구소,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7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인도네시아 연료보조금의 정치경제, 박재봉, 2013.4